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으로서의 위생: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의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한 대중 개조*

윤연하⁺, 김옥주⁺⁺, 정준호⁺⁺⁺

1. 서론

직장과 인민반, 학교들에서 봄철을 맞으며 진행되는 각종 “꾸리기” 검열사업, 거리마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옷차림 통제를 위한 “규찰대” 등은 직장인, 학생, 노인, 어린이, 주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 당국은 자기가 사는 거리와 일터,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의 신심이 없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매년 봄(3, 4월)에 전군중적으로 위생 문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도록 한다.¹

현대 북한에서 도로나 철도, 수로 관리부터 가정 내 청소 상태까지 일주일에 몇 차례씩 검열하는 3-4월의 “위생 월간”은 “고생 월간”으로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대중 동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² 2012년 『로동신문』 기사는 “가정을 잘 꾸리

* We thank the U.S. Library of Congress (Asian Reading Room Korean Collection) and Reference Specialist Sonya S. Lee for providing valuable primary sources for this study.

⁺ 서울대학교, yhaay@snu.ac.kr

⁺⁺ 서울대학교, okim9646@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parasite@snu.ac.kr

¹ 김연지, “봄을 맞는 북한주민들의 삶”, 『북한』 544 (2017), 108-109.

² “톡톡 북한 이야기, ‘위생월간’이 뭐길래”,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7/3659799_17999.html (2018. 2. 13. 접속).

고 혁명화”하는 이러한 위생 문화 사업이³ “도시와 마을을 백화만발하고 인민의 웃음이 꽃피나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⁴ 이처럼 오늘날의 위생 문화 사업은 사회 각층의 대중을 동원하고 그들의 일상 곳곳에 개입하는 사업이다.

1950년대에 시작된 위생 문화 사업은 초기에 질병 매개체 관리나 화장실 개량 등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점차 마을의 꽃밭을 가꾸고 도로와 학교, 사업장을 정비하는 광범위한 생활 양식 개조로 이어졌다. 생산 현장부터 학교와 가정에 이르기까지 살며 일하는 모든 곳이 위생 문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인민들 자신의 사업이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위생은 건강과 질병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가정과 마을, 도시를 포함한 일상 생활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매년 전 인민의 일상적인 동원이 전개되는 위생 문화 사업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 북한 대중의 일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의 보건 위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정책이나 행정 조직의 측면에서 거시적인 의료 제도를 살폈다.⁵ 이에 따라 연구의 대상은 노동자와 지식인, 농민 같은 특정 계급, 혹은 직장, 공장, 학교, 농장 같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관련된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생 문화 사업은 생산 현장 내에서의 대중 동원을 넘어 전사회적인 대중 동원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살필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연구 소재이다. 실제로 거시 정치와 거시 경제에만 치중한 북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북한 대중의 생활과 일상에 국가 권력이 개입한 모습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김진혁은 해방 직후 북한 당국이 전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을 국가적 사업의 주체로 위치시키며 위생 방역 사업을 북한의 국가 건설 과정 및 대중의 인민 의식이 형성되는 데

3 현대 북한은 위생 문화 사업을 “문화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을 없애으로써 건강과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인민들 자신의 사업이며 사람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 곳에서 통일적 보조를 맞추어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할 거창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2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409.

4 홍병우, “애국은 자기 집 뜰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로동신문』, 2012. 7. 13, 2면.

5 이성봉,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21:2 (2009), 323-357; 황상익, 『1950년대 사회주의 건설기의 북한 보건의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85-88.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⁶ 강진웅은 사회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재생산, 보건, 위생, 체육 등 생명 정치(biopolitics)의 기제를 구사하여 “새로운 주체의 인간형”을 전 국민의 개별 삶 속으로 침투·확산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학교와 보육을 중심으로 한 보건 위생 사업이 교양과 설득을 통해 개별 학생 주체들의 “규율화된 실천”을 유도하여, 강압의 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⁷ 또한 강명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물질적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1958년 이후 이루어진 문화 혁명에서 위생 사업을 사상 혁명과 연계하여 분석하면서, 위생 문화 사업이 공산주의 도덕과 연계되어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와 공간의 모범을 창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⁸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성립 과정이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기존의 위생 선전 및 위생 계몽 사업이 위생 문화 사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정치 분야나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일상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이 침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 성립 과정이 노동자, 농민, 지식인 계급을 넘어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는 과정과, 국가 권력이 대중 동원의 기제로 사용한 위생 문화가 대중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위생 문화 사업이 단순한 보건 정책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대중을 사회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대중 개조 사업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50년대 후반 발간된 보건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성 기관지 『인민 보건』과 대중을 대상으로 위생 상식 등을 보급한 잡지 『위생 문화』, 위생 문화 사업에 있어 학생 동원과 교육의 모습이 잘 나타난 『교원 신문』 및 여성 대상의 위생 문화 사업 정형이 나타나는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그 외 단행본 『위생 교양 독본』,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등을 활용하였다.⁹ 이러한 자료들은 북한 정권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당 기관지라는 한계가 있으나, 1950

6 김진혁, “북한의 위생방역제도 구축과 ‘인민’의식의 형성(1945-1950)”, 『한국사연구』 167 (2014), 247-287.

7 강진웅, “1950-1960년대 국가형성기 북한의 생명정치와 사회주의 주체 형성”, 『사회와 역사』 98 (2013), 155-189.

8 강명, “1958-1964년 북한 문화혁명의 변화과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9 『인민 보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분석은 김옥주, “북한 의학잡지 연구: 1950년대 『인민 보건』을 중심으로”, 『의사학』 11:2 (2002), 165-185 참고.

년대 당시 정기 발간되던 신문과 잡지로서 개찬의 가능성이 낮아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후 북한 연구들과 최대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2. 전후 복구 시기의 위생 사업

북한은 체제 성립 초기부터 위생과 방역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7년 5월 21일 북조선 인민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는 “인민 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를 발표하여 보건 의료 체계의 확대와 방역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¹ 해방 전 인구 만 명당 0.5명에 불과했던 의사 수는 해방 이후 의학 교육 기관 설립을 통해 빠르게 증가했고, 1948년부터 1950년까지 325개의 진료소와 간이 진료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대다수의 보건 시설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보건 인력이 전선으로 차출되어 사망하면서 인력의 공백이 심화되었다.

특히 전쟁 중 성인 남성 인구의 급감으로 노동력의 공백이 심화되면서 보건 의료의 역할은 남아있는 노동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는 데 맞춰졌다.¹²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1954년 6월 4일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내각 결정 제79호)에서는 “생산 문화를 제고시키기 위해” 위생 사업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¹³ 이를 위해 위생 사업은 대중의 건강 증진을 통한 노동 생산 능력의 향상, 영유아 및 소아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 인구의 증가를 추구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건강 상태와 잦은 질병 이환(罹患)은 노동 능력과 생산 능력의 저하를 초래했다. 김일성은 “인민 보건 분야에서 전염

¹⁰ 북한 정권에서 간행한 자료들은 시기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개찬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개찬 역시 해당 시기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의도나 시대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I』 (선인, 2007), 39-4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선인, 2005), 31-32.

¹¹ 황상익, 앞 책 (각주 5), 24-25.

¹² 인구학적 추정을 통해 작성된 1948, 1953, 1958년 재구성 인구의 성비를 살펴보면 1948년부터 1953년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 인구가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 그 정도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폴빛, 1992), 75-76.

¹³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4-1955년 판)』 (조선중앙통신사, 1954), 72-74.

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며 주민들의 리병률을 계속 낮추며 근로자들의 일시적 로동 능력 상실을 줄이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것"을 과업으로 제시하였다.¹⁴ 따라서 전후 복구 사업 중 보건 의료 사업은 체계적인 동원을 필요로 하는 위생 계몽 혹은 위생 선전 사업보다는 주로 시설과 인력의 확충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1954년 발표한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의 첫 번째 강령은 “보건성을 비롯한 각급 보건 기관 지도 일꾼들이 전후 인민 보건 사업을 조직하여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미약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건 의료 인력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생 선전 체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섯 번째 강령 역시 “전체 보건 기관들과 보건 일꾼들이 동원되지 않고”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¹⁵

실제로 1957년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보건 의료 자원을 가지고 기초적인 방역 사업 이상의 위생 계몽 및 선전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북한은 당적 지도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도 부족한 상태였다.¹⁶ 예를 들어 1954년 10월을 기준으로 농업 협동화 비율은 21.5%에 불과했으며, 기업소의 행정 경제 사업을 직접적인 당의 통제 하에 놓게 된 것도 1956년 4월에 들어서였다.¹⁷ 당의 통제력이 아직 효과적으로 대중을 동원할 만큼 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생 사업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개인 중심의 소유 구조가 잔존하며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는 기업소나 농작지, 가정의 위생 개선을 위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 사업에 대중의 참여를 강조하는 군중 노선이 등장한 것은 1956년이였다.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난 1956년 8월 30일 전원 회의 결정 중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는 기존의 보건 위생 관련 결정 사항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 문건은 이전 보건 사업의 주요한 결점으로 “인민 대중 속에서의 위생 교양 계몽 사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첫 번째 강령으로 “인민들의 보건 상태를 개선하는 기본 대책의 하나는 인민 보건 사업이 인민들

¹⁴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56년 4월 23일”, 조선로동당 출판사 편, 『인민 보건사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5), 82.

¹⁵ 조선중앙통신사, 앞 책 (각주 13), 72.

¹⁶ 서동만, 앞 책 (각주 10), 760-764.

¹⁷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64-109.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 자체가 철저히 자각하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¹⁸ 1957년 홍명희 부수상은 전후 3개년 보건 사업 총화 회의에서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보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 인입시킴으로서만 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경우에 얼마 안 되는 보건 일군들의 힘을 가지고 협소하고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사업”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대중들의 창발적 의견과 제의를 허심하게 접수하며 하부에 대한 지도를 계획적으로 조직 집행”하는 군중 노선으로의 전환이 보건 위생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¹⁹

전후 복구 시기를 지나며 확충된 보건 의료 인력과 시설의 확충은 이러한 군중 노선을 시도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을 제공했다. 전후 복구 3개년 계획 기간 동안 의사 910명을 포함한 신규 보건 의료 인력 3,288명이 양성되었고, 위생 방역 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1953년과 비교해 1956년에 4.23배 늘어났다.²⁰ 또한 노동 위생 시설은 1953년부터 1956년까지 2.26배 늘어났고,²¹ 1957년부터는 디스토마 예방소가 주요 유행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면서 농촌 지역 말단까지 보건 인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²² 이러한 물질 기반의 확대에 따라 지역 말단에까지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자원이 확보되었고, 그 결과 위생 사업을 일상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56년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의 결정에 따라 비상 방역 위원회가 해체되고 위생 방역 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전후 복구 단계의 전염병 관리를 중심으로 한 방역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위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³

이 시기 위생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분야는 각종 위생 시설을 건설하고 개조하는 위생 개조 사업이었다. 전후 복구 사업이 종료된 1957년에 들어서도 대중에 퍼져있던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이나 관습은 전염병의 유행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소로 남아 있었다. 변소 관리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

18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6년도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 정치 · 상무 · 조직위원회 결정집”,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자료집 30』 (국사편찬위원회, 1998), 789-795.

19 홍명희, “전후 3개년 보건 사업 총화 회의에서 하신 홍명희 부수상의 축사”, 『인민 보건』 1957년 4월, 2-3.

20 황상의, 앞 책 (각주 5), 77-78.

21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1), 509.

2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58년 판)』 (조선중앙통신사, 1958), 138.

2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앞 글, 789-795.

으며,²⁴ 우물에는 뚜껑이 없거나 주위에 변소나 축사가 접해 있어 식수 오염의 위험성이 컸다.²⁵ 도시 중심 지대에 돈사들이 남아 있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불결하게 했다.²⁶ 또한 각종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물을 끓이지 않고 “랭수를 먹는 관습”이 전염병 유행 방지에 특히 걸림돌이 되었다.²⁷ “제때에 세안조차도 잘 하지 않”고 “식사 전에 손 안 씻는 것은 보통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도 많았다.²⁸ “가재즙을 만들어 홍역 환자에게 먹임으로 홍역을 예방한다는 그릇된 습성”은²⁹ 디스토마의 유행에 일조하였으며, 홍역은 “옛날부터 죽어서도 한다는 제구실”로³⁰ 여겨진 데다 “홍역을 앓을 때면 피를 다루지 않는 법”이라는 관습이 있어 성인 혈청 주사를 통한 예방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³¹ 출산 과정에서도 “배꼽 줄을 가위로 자르면 땀이 세다는 등 미신적인 관념”이 잔존했다.³²

당시 전염병 이병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찾기는 어려우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보건성 부상 류기춘은 제3차 조선 의학회 보고에서 당면 과제로 “위생 환경 개조 문제와 전염성 질환과의 투쟁 및 예방 문제”를 제시하며, 일본 뇌염, 적리(이질), 부르젤료즈(브루셀라), 말라리아, 디스토마(흡충), 장내 기생충, 결핵 등을 중요한 문제로 언급했다. 특히 “리병률과 사망률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아 전염병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한 뒤 그 중에서도 특히 “홍역과 백일해는 우리 보건 일꾼들의 각별한 주의를 집중하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³³ 또한 이 학회에서는 총 44건의

²⁴ 김일성, “새 환경에 맞게 군인민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발췌)—도, 시, 군인민위원회위원장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7년 7월 12일”, 조선로동당 출판사 편, 앞 책, 85.

²⁵ 김영, “위생 방역 부문에 제기된 당면한 몇가지 문제”, 『인민 보건』 1957년 5월, 13.

²⁶ 같은 글, 12.

²⁷ 황룡일, “병원내에서 위생 선전 사업 조직 경험”, 『인민 보건』 1957년 7월, 49.

²⁸ 김문숙, “위생 문화 생활도 꽃피우면서—삼등-세포, 지하라-평산간 철도 부설 공사장에서”, 『위생 문화』 1959년 4월, 16.

²⁹ 황룡일, 앞 글, 49.

³⁰ 백춘렬, “김일성 원수의 탁아소 사업에 대한 현지 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찰하겠다”, 조선녀성사 편,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평양: 조선녀성사, 1962), 131. 한반도에서 홍역은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하여야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그 속명(俗名)도 제 구실(자기의 의무), 제겻(자기 소유)으로 불려왔다. 원보영, 『민간의 질병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학적 연구』 (민속원, 2010), 142-143.

³¹ 백춘렬, 앞 글, 131.

³² 정세애, “산모들의 친정 어머니가 된 심정으로”, 조선녀성사 편,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316.

보고가 있었는데 그 중 위생 문제 14건, 일본 뇌염 8건, 적리 6건, 기타 문제 16건으로 당시 보건 분야에 있어 위생과 전염병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³⁴ 보건성 위생 방역국 국장 김영도 1957년 “위생 방역 부문에 제기된 당면한 과업”으로 발진 티푸스, 장티푸스, “현재 가장 리병률이 높은 소아 전염병(특히 홍역, 백일해)”와 디스토마를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³⁵

평안북도 운전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군 단위로는 각종 보건 관련 인력을 선발하여 “지도 그루빠”를, 협동 조합 단위로는 “몇 조의 변소 및 우물 개조 돌격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변소 및 우물 개조 주간”을 정해 “지방의 유희 자재들을 동원 리용”하여 변소에 뚜껑을 설치하고 문을 달며 분조는 깊이 파 미장했다. 사업 결과 평안북도 운전군에서 변소는 5,493곳 중 4,469곳(약 83%), 우물은 813곳 중 669곳(약 81%)이 개선되었다.³⁶ 이러한 위생 개조 사업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식수 위생 개선이나 파리, 모기, 이 잡기 등 전염병 예방에 중점을 둔 이 사업은 일부 모범 마을에서 성공적인 대중 동원을 이끌어 냈지만, 동시에 “위생적 모범 부락 창설 운동”과 같은 대표적인 위생 개조 사업이 “목적 지향성이 부족하며 일시적인 청소 미화 사업에 끝나치고 말거나 또는 군중적 운동으로 일상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³⁷

대중의 위생 인식을 변화시키고, 위생 사업을 일상으로 만들기 위한 위생 선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1956년 시행된 위생 선전 사업은 목표치 대비 평양시 5.4%, 평안북도 22.4%, 함경남도 34.5%, 함경북도 47.9%로 낮은 성과를 보였다.³⁸ 즉 전후 복구 기간 진행된 방역 사업의 경험과 물적 기반의 확대로, 일회적 위생 사업에서의 대중 동원을 이끌어 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동원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 현장에 대한 당적 관리와 개입은 점차 강화되고 있었지만, 여성이나 아동, 노인 등 생산 조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중에게

33 류기춘, “우리 나라 위생 방역 사업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과업 (제3차 조선 의학회 보고 요지)”, 『인민 보건』 1957년 1월, 3-8.

34 최명학, “제3차 조선 의학회 결론”, 『인민 보건』 1957년 1월, 9.

35 김영, 앞 글 (각주 25), 10.

36 김룡관, “위생 개조 사업에서 얻은 경험”, 『인민 보건』 1957년 5월, 65-66.

37 편집부, “위생 방역 사업에서 나타난 몇가지 결함들에 대하여”, 『인민 보건』 1957년 2월, 14.

38 한창환, “위생 선전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결함에 대하여”, 『인민 보건』 1957년 7월, 12.

는 위생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동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3. 문화 혁명으로서의 위생 문화 사업

1958년 5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보건 위생 사업을 전군 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에서 김일성은 “보건 위생 사업은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부분인 문화 혁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건 위생 사업을 단순한 보건 사업이 아니라 문화 혁명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과업의 일부로 부각시켰다.³⁹ 또한 위생 개조 사업과 위생 선전 사업이 위생 문화 사업에 모두 포함되며, 환경 부분에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것을 지시했다. 홍순원의 『조선 보건사』에서는 이 결정을 통해 “보건 위생 사업이 기술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문화 혁명의 한 부분이라는 독창적인 해명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보건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새롭게 밝혀지고 이 사업을 노동 계급의 당과 국가가 주요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 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⁴⁰

위생 사업은 주로 노동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역과 전염병 관리, 혹은 사업장 내 위생 관리에 집중하면서 노동자들을 주로 동원하고 있었다.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일상 생활을 위생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노동 능력 상실을 줄이도록 교양되었으며,⁴¹ 특히 식료품 관련 생산 현장에서는 생산물의 위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⁴²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개인 휴식 시간에 대한 관리도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생산에서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위생 관습을 준수하여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노동 능력 상실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받았다.⁴³ 1957년 출간된 『위생 교양

39 김일성, “보건 위생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8년 5월 4일”, 조선로동당 출판사 편, 『인민 보건사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5), 86-89.

40 홍순원, 앞 책 (각주 21), 532.

41 김종영, “생산 기업소에서의 위생 계몽 사업의 조직과 방법”, 『인민 보건』 1959년 2월, 33.

42 오병식, “수산 부문 로동자들에 대한 보건 위생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인민 보건』 1958년 4월, 7.

43 김종영, 앞 글, 33.

독본』에는 “로동 위생과 휴식 위생”이라는 독립된 장이 포함되어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로동자들은 생산에서 일정한 행동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이면에서 국가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⁴⁴ 예컨대 “충분한 휴식 후에 똑똑한 정신으로 작업에 착수하고, 점심 시간을 위한 중간 휴식 시간에 손을 씻고, 일을 끝마치고 돌아 갈 때에 목욕을 하는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위생 문제가 문화 혁명으로 격상되면서 동원의 범위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을 매개하는 유해 곤충 및 동물 박멸 사업은 여성과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노동력을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졌다.⁴⁶ 대표적인 유해물은 파리와 쥐였다. 이러한 유해물 박멸 사업은 성과에 대한 양적 판단을 내리기에 용이하여, “박멸 책임량을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⁴⁷ 개인별, 집단별로 박멸한 양을 수치화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사업 방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⁴⁸ 변소에 끓는 물을 부어 구더기를 박멸하거나,⁴⁹ 번데기를 잡고 흙을 정리하며 파리를 퇴치하였으며,⁵⁰ “쥐구멍 뒤지기”, “벼집 난가리 뒤지기”, “쥐구멍에 불을 쬔여서 연기를 넣어 들쥐를 잡는” 사업이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⁵¹ 또한 디스토마 박멸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을 동원한 가재, 골뱅이 잡이 또한 진행되었다.⁵² 뿐만 아니라 위생 시설 건설 및 개조 작업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동원된 학생들은 교내 변소 개조, 목욕탕 건설, 이발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⁵³ 지역 사회의 변소 개조 사업 등에 협력하기도 했다.⁵⁴ 지역 사회와 학교 뿐 아니라 생산 현장 내에도 목욕 시설 및 여성 위생실

44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편, 『위생교양독본』 (평양: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1957), 48.

45 같은 책, 48.

46 편집부, “추기 위생 월간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 『위생 문화』 1959년 9월, 8.

47 편집부, “농촌 위생 월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위생 문화』 1959년 8월, 23.

48 “번데기 150여 킬로그램을 잡았다”, 『교원 신문』, 1959. 3. 21, 4면.

49 편집부, “추기 위생 월간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 8.

50 “번데기 150여 킬로그램을 잡았다”, 『교원 신문』, 1959. 3. 21, 4면.

51 “쥐와 번데기를 박멸하고 있다”, 『교원 신문』, 1959. 1. 24, 2면.

52 “각지 학교들에서 성과를 계속 확대”, 『교원 신문』, 1959. 4. 25, 3면.

53 “[하기 위생 사업을 강화하자!] 학교들의 위생 문화 사업 개선에서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교원 신문』, 1959. 6. 13, 2면; “[위생 단신] 자강도 초산군 양도 인민 학교, 량강도 백암군 양흥 중학교”, 『교원신문』, 1959. 6. 13, 4면.

54 “위생 문화 사업의 성과는 생활에서 구현되고 있다—북청 농업 전문 학교 위생 문화 사업에 서”, 『교원신문』, 1959. 3. 21, 4면.

등이 설치되었다. 내각 결정에서는 “보건상은 필요한 시기에 의학 전문 학교 전체 교직원, 학생(졸업반 학생 제외)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다.⁵⁵

한편 병원은 위생 문화 사업에 있어 학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간주되었다.⁵⁶ 보건 일군들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위생 지식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직업적 특성상 다양한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였으므로 대중 속에서 위생 선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⁵⁷ 이에 따라 초기에는 병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주로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진료 대기 시간을 이용한 위생 선전 사업이 대표적이었다. 기본적으로는 병원 대합실에 각종 위생 표어와 포스터, 만화 등을 게재하는 방식이 흔했고,⁵⁸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두 선전도 진행되었다.⁵⁹ 접수 번호표에 위생 지식 관련 질문을 삽입하여 환자로 하여금 진료 대기 중에 병원 내 위생 선전실을 둘러보며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진료시 의사가 대답을 확인함으로써 위생 지식을 제고시키는 것도 있었다.⁶⁰ 위생 선전문과 싸이 되는 그림을 찾도록 하여 위생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위생 화투” 등 오락도 고안되어 이용되었다.⁶¹ 하지만 군중 운동으로서 위생 문화 사업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병원의 보건 일군들은 직접 학교나 인근 지역 사회를 방문하여 위생 관련 강연이나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위생 선전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⁶² 또한 진료소 등에서 위생 일군을 지도, 양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마을 내 위생 선전 사업에 기여하였다.⁶³ 보건 인력의 주도로 진행된 “위생 연애 서클 경연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따뜻한 의료 혜택을 노래”하면서 “위생 문화적으로 꽃피는 우리의 보람찬 생활에 대하여 노래하며 춤추”는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⁶⁴

5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59년판)』, 82.

56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근로자』 1959년 11월, 58.

57 조선로동당 출판사, “보건일군들을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키우시려고”, 『인민의 아버지(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5), 483.

58 본사 기자, “전후 3개년 보건 사업 총화 회의에서의 토론중에서”, 『인민 보건』 1957년 4월, 74.

59 본사 기자, “[찬양] 대동군 제 1병원에서의 위생 선전과 의료 방조 조직”, 『인민 보건』 1957년 6월, 73.

60 같은 글, 74.

61 황룡일, “병원내에서 위생 선전 사업 조직 경험” (각주 27), 49.

62 “춘기 위생 방역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교원 신문』 1958. 3. 15, 4면.

63 홍룡길, “간이진료소 사업경험”, 『인민 보건』 1957년 5월, 71.



그림 1. 학생들은 위생 개조 사업에 동원되는 주요한 예비 노동력 중 하나였다. 학생들이 수집한 해충들은 추후 비료로 사용되는 등 또 다른 “예비를 적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출처: “번데기를 잡고 있는 평양 제7중학교 학생들”, 『교원신문』, 1959. 3. 7, 4면.]

여성, 특히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대한 위생 선전 사업 또한 중요하게 진행되었다. 여성의 위생 제고는 당사자인 여성으로 하여금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노동에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했을 뿐 아니라, 여성이 아동의 주된 양육자라는 점에서 여성의 위생 지식과 관리 수준이 아동의 보건 위생과 직결되었으므로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임신과 해산에 있어서의 위생 관리는 영아 사망률을 낮춤으로써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또한 각

64 본사 기자, “위생 연예 서클 경연 대회를 준비”, 『인민 보전』 1959년 4월, 59.

가정에서도 여성의 영향력이 대체로 강했으므로 가정에 대한 위생 문화 사업 침투에 있어서도 여성이 중요하게 간주되었다.⁶⁵ 여성에 대한 위생 문화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어머니 학교”로서, “위생 지식과 유아 양육 방법을 교육주기 위한” 것이었다.⁶⁶ 어머니 학교의 운영 형태는 하나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기수별로 모집하여 정기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부터⁶⁷ 산모를 대상으로 1주일 간 한 시적으로 운영하는 것,⁶⁸ 병원과 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부터⁶⁹ 생산 기업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까지⁷⁰ 다양했다.

어머니 학교를 통해 위생 지식을 교육받은 여성들은 자신과 가정의 위생 관리에 힘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반과 부락에서 위생 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선동자가 되도록 요구받았다.⁷¹ 또한 임신과 출산에 있어 위생 상태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신부 등록 사업과 해산 방조 제도가 운영되면서 조산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위생 지식이 보급되고 각 가정의 위생이 제고되었다.⁷² 아동 기관이 확대되고 그에 대한 위생 지도가 강화되면서 아동 기관의 보모를 통한 부모에 대한 위생 선전 사업도 이루어졌고, 소아 전염병 예방 접종이 시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각 가정에 대한 위생 선전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⁷³

이처럼 직접적으로 생산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 내 여성이나 학생들을 보건 사업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1956년 12월부터 이어진 “내부 예비의 동원”이라는 북한의 경제 개발 노선과도 연결되었다. 1956년 대외 원조금이 줄어들면서 국내 자원에 의존하여 경제 개발을 이루어내야 할 상황이 닥치자, 북한은 기업 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예비 물자를 적발·동원하는 방식으로 추가 투자 없이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⁷⁴ 위생 문화

65 손중녀, “김일성 원수의 현지 교시를 철저히 관찰시키며 녀성들의 문화 의식 수준을 제고시키겠다”,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각주 30), 200-213.

66 리병남, “전후 3개년 보건 사업 총화와 1957년도 당면 과업에 대하여(전후 3개년 보건 사업 총화 회의에서의 보고)”, 『인민 보건』 1957년 4월, 18.

67 편집부, “[단신] 어머니 학교 활발히 운영”, 『인민 보건』 1958년 1월, 79.

68 리경신, “해산 방조 사업에서 얻은 몇 가지 경험”, 『인민 보건』 1958년 11월, 29.

69 편집부, “활발히 운영되는 어머니 학교”, 『인민 보건』 1958년 9월, 75.

70 김종영, 앞 글 (각주 41), 36.

71 장지만, “우리와 조산원의 지정 담당 구역 사업에서 얻은 경험”, 『인민 보건』 1958년 2월, 41.

72 본사 기자, “근로 녀성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할 위대한 발기-제7차 전국 산부인과 경험 교환회에서”, 『인민 보건』 1959년 1월, 61; 정세애, 앞 글, 326.

73 백춘렬, 앞 글 (각주 30), 131-132.

사업은 생산 현장에서의 증산 운동의 체계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훈련과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경쟁 운동과 모범의 일반화로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협동 조합 간 경쟁 운동이 체결되었으며 “자돈 한 마리”나⁷⁵ “상금”⁷⁶ 등 물질적 유인이 제시되기도 했다. “군급 기관 부양 가족 간에 경쟁을 체결케 함으로써 가정 부인들이 실내외의 청소 미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⁷⁷ 심지어 “부부간 경쟁을 체결”하여 “남편은 바깥을 안해는 집안을 누가 더 깨끗이 꾸리는가를 경쟁키로 하였으며 채점 위원도 구성”하는 사례도 있었다.⁷⁸ 4-5개 학교씩을 묶어 “호상 위생 모범 학교를 창조하기 위한 경쟁을 조직 진행”하기도 했다.⁷⁹

학교 외에도 개인, 가정, 반 등의 다양한 단위로 모범 창조 운동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위생 개조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위생 모범 리(동) 창설 운동이 대표적이었다. 이는 위생 개조의 항구적인 완료를 목표하는 것으로서, 그 목표를 “앞당겨 완수하는 경쟁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면서 우수한 경험을 보편화하는 사업과 표창하는 사업을 제때에 조직 집행”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으로 제시되었다.⁸⁰ 이처럼 위생 개조 사업에서 시행된 목표의 조기 완수 추진이나 위생 모범 리, 위생 모범 학교 등 우수한 사례의 공표와 일반화는⁸¹ 천리마 운동 및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의 양상과 유사하다.⁸² 생산 현장에서 예비를 동원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모습은 위생 개조 사업에서 각종 시설을 건설 및 개조하는데 지방의 유희 자재를 동원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⁸³ 이러한 유사점들은 위생 문화 사업에 참가하는 광범위한 대중들, 특히 학생과 여성들로 하여금 생산 현

74 이태섭, 앞 책 (각주 17), 90-91.

75 김룡관, 앞 글 (각주 36), 66.

76 본사 기자, “위생 문화적으로 변모되는 문덕군”, 『인민 보건』 1958년 6월, 71.

77 김룡관, 앞 글, 66.

78 편집부, “도시 위생 월간을 맞이하여”, 『위생 문화』 1959년 4월, 10.

79 “[하기 위생 사업을 강화하자!] 학교들의 위생 문화 사업 개선에서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교원 신문』, 1959. 6. 13, 2면.

80 김동수, “위생 문화 사업의 더욱 높은 발전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1월, 17.

81 “위생 모범 리 (동) 창설 운동을 광범히 조직 실시하여 도시, 로동자구에서는 1959년 5·1절까지, 농촌에서는 8·15까지 위생 개조를 항구적인 것으로 완료하는 방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앞당겨 완수하는 경쟁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면서 우수한 경험을 보편화하는 사업과 표창하는 사업을 제때에 조직 집행하여야 한다”, 같은 글, 17.

82 강호제, 앞 책 (각주 10), 208.

83 이태섭, 앞 책 (각주 17), 90-91.

장의 체계에 익숙해지게 하여 이들을 노동력으로 용이하게 동원될 수 있는 예비 노동 인구로 만들었다.

위생 문화 사업 과정에서 학생과 여성들이 예비 노동 인구를 넘어 즉각적인 실제 노동력으로 투입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교내 뿐 아니라 인근 부락의 각종 미화 사업 및 위생 개조 사업에 동원되었으며 특히 유해 곤충 및 동물 박멸 사업에서 주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김일성은 1958년 5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론 “보건 위생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하여”에서 학생들을 이용한 유해 곤충 및 동물 박멸 사업을 약 3년간 제도화하여 매주 토요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⁸⁴ 이러한 위생 문화 사업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학생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여성 또한 여맹을 통해 유해물 박멸 사업에 요긴한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⁸⁵ 위생 문화 사업은 일상 생활에 대한 생산과 노동 패러다임의 침투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시에 대중, 특히 여성과 아동, 학생으로 하여금 노동 체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4. 대중의 일상과 위생 문화 운동

1958년 8월 북한은 개인 농민들이 모두 농업 협동 조합으로, 개인 상공업자는 생산 협동 조합이나 생산 판매 협동 조합으로 조직되었다고 발표했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완성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모든 소유 구조가 개인에서 집단과 국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득은 북한 대중 모두의 것인 동시에 개인의 것이라고 설득할 수 있게 되었다.⁸⁶ 더불어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이후, 사회주의적 사상과 생활로 대중의 사상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 혁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⁸⁷ 이에 따라 생산 현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사회주의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외에 대중의 일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다.

84 김일성, “보건 위생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하여”, 86.

85 편집부, “추기 위생 월간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자”, 8.

86 강호제, 앞 책 (각주 10), 213-214.

87 이태섭, 앞 책 (각주 17), 191.

지역 사회에서는 “농산 사업이 바쁘다느니 하면서 이러저러한 구실로 위생 사업을 차요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으며,⁸⁸ 심지어 “함경북도 김책군 운호리와 평안북도 관산군 초산리를 비롯한 일부 리들에서는 목욕탕, 리발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⁸⁹ 위생 시설 개조 사업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된 데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서 거의 다 못쓰게”되는 경우가 상당하여,⁹⁰ “일부 변소들은 비가 새고 외부로부터 분조 안에 물이 들어오며 적지 않은 분조 뚜껑이 없어”진 상태인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⁹¹ 쥐잡이를 위해 쥐장을 보급했지만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적지않게 쥐장을 그냥 창고방에 처박아 두고 쓰지 않고 있”었고, 마을 지도 일꾼들도 위생 사업을 철저히 지도하는 대신 “상부에서 지시문이나 내려오면 이것을 어느 회의 뒷 끝에 한번 읽어 버린” 것으로 끝내고는 했다.⁹² 학교에서는 “토끼사와 변소 관리를 등한시”하거나 “지식을 학생들의 위생 문화 생활, 실천 활동과 결부시키지 않고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교조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경향”이 존재했다.⁹³ 심지어 “다른 기본 학과 진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구실 밑에 위생 교수 시간을 타 과목 시간에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⁹⁴ 이처럼 청소 미화나 시설의 개조 등 위생 사업을 스스로의 일로 여기지 못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이제 사회주의적 태도의 문제가 되었다.

1958년 5월 19일 발표된 “위생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데 관하여(내각 결정 제52호)”에 의해 1956년 설립된 위생 방역 위원회가 해체되고 중앙 위생 지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지도가 강조되면서 본래 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였던 위생 검열원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김일성은 “보건 위생 사업을

88 본사 기자, “위생일을 자랑의 날로, 기쁨의 날로 맞이하자—황해남도 위생 지도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인민 보건』 1958년 9월, 73.

89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각주 56), 57.

90 림우균, “담당 구역에 대한 위생 사업 지도에서 책임성을 높이자—원군 제병원 사업에서”, 『인민 보건』 1959년 4월, 64.

91 편집부, “노력의 열매”, 『위생 문화』 1959년 7월, 18.

92 편집부,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정주군 침향리의 위생 문화 사업에서”, 『위생 문화』 1959년 7월, 29.

93 “[춘기 위생 사업에 학교가 앞장서자!] 왜 시정되지 않고 있는가”, 『교원 신문』, 1959. 3. 7, 3면; “성과를 한계단 더 높은 단계어로! 선차적이고 중요한 것”, 『교원 신문』, 1959. 4. 25, 4면.

94 “[하기 위생 사업을 강화하자] 위생 수업의 질을 높이자—평양 대신 중학교에서”, 『교원 신문』, 1959. 6. 27, 2면.

잘하기 위하여서는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단순히 조사원의 역할만 맡고 있던 위생 검열원에게 위생 지도원의 역할을 함께 부여했다.⁹⁵ 위생 지도원은 위생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



그림 2. 위생 문화 사업에서 비위생적이고 비문화적인 태도는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낡은 유산으로 간주되었다. [출처: “위생 문화에서 낡은 태도”, 『위생문화』 10 (1959), 7.]

는 권한이 주어졌다.⁹⁶ 여관, 식당, 식료품 공장 등은 물론 가정 또한 그 대상이 되어 “가정 내의 정돈 정형, 의류, 침구 세탁 사업, 부엌 변소 관리” 등이 검열되었으며,⁹⁷ 학교에서는 교원들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개인 위생을 검열하였다.⁹⁸ 비위생적이고 비문화적인 생활은 곧 “자기 존재의 사회·경제적 근거를 이미

95 김일성, “보건 위생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하여” (각주 39), 87.

9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59년판)』 (조선중앙통신사, 1959), 82-84.

97 류장록, “농업 협동 조합 위생소 지도 경험”, 『인민 보건』 1957년 9월, 59.

98 오계룡, “동기 위생 방역 사업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 『인민 보건』 1958년 11월, 10.

상실한” 일로까지 여겨졌다.⁹⁹ 개인 신체와 가정에 대한 위생 관리는 위생 문화 사업이라는 국가적 정책을 관철시키는 과업으로서,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부과되었다. 위생 지도 위원회는 당 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 개인의 일상에 당의 권한이 직접적으로 침투하여 대중의 생활 양식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사회 단체 등이 위생 지도 및 검열 사업에 동원되어 “너 맹 단체들은 문화적인 가정 생활을 꾸리는 사업을 지도하고 교양 주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으며,¹⁰⁰ 학교에서는 교원들로 “위생 지도 검열대”를 조직하였다.¹⁰¹ 이처럼 당적 지도가 생산 현장을 넘어 개인의 일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위생의 개념 또한 방역을 넘어 일상 생활 전반으로 넓어졌다.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 외에 각종 시설을 보수하고 주변 환경을 청소 미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각자의 주택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며¹⁰² 너맹을 통해 주부들이 중요한 인력으로 동원되었다.¹⁰³ 그 외에도 조합 혹은 지역 사회 단위로 대청소를 하고 건물 벽에 백토칠을 하거나 도로를 포장, 수리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¹⁰⁴ 공장 등 생산 현장에서도 근처 도로를 포장하거나 공장 안팎을 미화하였고,¹⁰⁵ 특히 학교에서는 교실 천장과 벽을 칠하거나 화단을 설치하고 학교 출입로를 포장하며 학교 근방의 도랑을 보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¹⁰⁶ 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등 녹화 사업 또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나 학생 동원을 통해 이루어졌다.¹⁰⁷

학교에서의 위생 선전 사업은 “학생들을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과 함께 높은 문화성을 소유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나아가 학생들을 통해 지역 사회와 가정으로 위생 선전을 침투시키고자

99 지면식, “인민 생활에서의 문화성 제고는 현 시기 우리 나라 문화 혁명의 중요 과업”, 『근로자』 1958년 6월, 52.

100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각주 56), 58.

101 “[하기 위생 사업을 강화하자] 학교들의 위생 문화 사업 개선에서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교원 신문』, 1959. 6. 13, 2면.

102 림우균, “담당 구역에 대한 위생 사업 지도에서 책임성을 높이자” (각주 90), 64.

103 김룡관, 앞 글 (각주 36), 65.

104 홍룡길, 앞 글 (각주 63), 72.

105 편집부, “도시 위생 월간을 맞이하여”, 11.

106 “춘기 위생 방역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교원 신문』, 1958. 3. 15, 4면.

107 “농촌 위생 월간 사업에 교원, 학생들이 적극 동원”, 『교원 신문』, 1959. 3. 21, 3면; 홍룡길, 앞 글, 72.

하였다.¹⁰⁸ 먼저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에 대한 위생 교수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에 별도의 위생 교수 시간을 두고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청소』, 『위생독본』 등 각종 관련 교재가 제작·보급되었다.¹⁰⁹ 교육은 주로



그림 3. 위생 문화 사업은 질병 관리를 넘어 예비 노동력을 동원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광범위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출처: “봄을 맞이하여 학교 운동장과 그 주변을 미화하고 있는 평양시 하당 중학교 교원, 학생들”, 『교원 신문』, 1959. 3. 21, 3면]

교원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인근 진료소 일군 등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 보건 인력의 강연으로 시행되기도 했다.¹¹⁰ 학생들은 교육받은 위생 지식을 각자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 해설·선전하도록 유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 조직이 이용되었는데, “씨클대”가 조직되어 부근 공장과 인민군 부대를 순회하며 위생 선전을 했고,¹¹¹ “위생 선전대”는 “각종 전염병 예방 대책들을 매 가정에 해설 침

¹⁰⁸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57.

¹⁰⁹ “[하기 위생 사업을 강화하자] 위생 수업의 질을 높이자—평양 대신 중학교에서”, 『교원 신문』, 1959. 6. 27, 2면; “귀와 번데기를 박멸하고 있다”, 『교원 신문』, 1959. 1. 24, 2면.

¹¹⁰ “위생 방역 사업을 강화”, 『교원 신문』, 1958. 4. 19, 3면; “춘기 위생 방역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교원 신문』, 1958. 3. 15, 4면.

¹¹¹ 편집부, “위생 선전을 위한 씨클을 준비하고 있다”, 『위생문화』 1959년 12월, 58.

투”시키고¹¹² “위생 표어와 그림을 학교와 마을에 붙였으며 음악, 무용 등 연예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학구역 내 부락을 순회 공연”했다.¹¹³ 특히 1959년 3월부터 시작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함께 학생들은 위생 문화 사업을 위한 “천리마 분단” 창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학생 천리마 분단의 활동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변소를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위생 검열 위원회를 조직해 상호 개인 위생 및 환경 위생, 공중 도덕을 검열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¹¹⁴

사상적 측면에서의 위생 문화 사업은 위생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생활 습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애국주의적·사회주의적 사상 교양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상적 측면에서의 위생 문화 사업은 일반적으로 위생 선전 사업으로 불렸으며, 표어, 포스터, 노래 등 다양한 방법이 고안 및 시행되었다.¹¹⁵ 학교와 병원은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 간주되며 위생 선전 사업의 중심이 되었다.¹¹⁶ 여성에 대한 위생 선전 사업 또한 가정 내 위생 제고와 모자 보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 외에도 생산 현장을 비롯해 영화관, 역 대합실 등 다양한 곳에서 위생 선전이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위생 선전관이 설치되기도 했다. 1958년 8월 15일에 개관한 중앙 위생 선전관은 각종 위생 지식 뿐 아니라 당의 인민 보건 정책까지 그 전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각종 도표와 모형 등을 전시하였다. 지도부는 위생 선전관의 관람자들이 “우리 당과 정부의 인민 보건 정책의 우월성을 깊이 느끼면서 위생 문화적인 건강한 생활을 꾸릴 데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기를 기대하였다.¹¹⁷ 그 외 지역별로도 상설 위생 전람관이 건설되었고, 그 전시는 일반적인 위생 선전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위생 개조 사업과 관련된 각종 모형까지 포함하였다.

1959년 3월부터 평양 시내 진료소들에서 실시된 3세 미만 유아 등록 제도나

¹¹² “춘기 위생 방역에 모범”, 『교원 신문』, 1958. 4. 2, 4면.

¹¹³ “농촌 위생 월간 사업에 교원, 학생들이 적극 동원”, 『교원 신문』, 1959. 3. 21, 3면.

¹¹⁴ 백성수, “위생 월간에 천리마 분단 창조 운동 전개”, 『위생 문화』 1959년 4월, 32.

¹¹⁵ 그 외에도 위생 계몽 사업, 위생 교양 사업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는 하나 위생 선전 사업이 비교적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1958년 5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론에서 김일성이 위생 선전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2001년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대백과사전』에서도 ‘위생 선전’을 ‘위생 지식 보급 사업’과 ‘위생 계몽 교양’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백과사전 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29)』 (평양: 백과사전 출판사, 2001), 408.

¹¹⁶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57.

¹¹⁷ 편집부, “중앙위생선전관”, 『위생 문화』 1959년 9월, 33.

각종 아동 기관 확대 정책을 통해,¹¹⁸ 미래 인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당과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었다.¹¹⁹ 이후 성장 과정에서는 진료소에 등록 및 관리되고 아동 기관에 의해 양육되었다. 각자 가정의 일, 넓게 보아도 마을 공동체의 일이었던 출산과 양육이 국가적 사업이 되었으며 개인의 탄생과 성장이 당과 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그 이전에는 학령기 청소년 인구나 성인 노동 인구가 각각 학교와 생산 현장이라는 조직 체계 하에서 당과 정부의 지도를 받았던 것에 비해 영유아기와 아동기 인구는 가정에 속해 상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존재였다. 하지만 모자 보건 정책의 강화가 이들까지도 지도부의 영향력에 포함시키게 되자, 개인의 일생에서 국가 권력의 공백이 축소되었다. 이제 임신부들이 아이와 자신을 위생 문화적으로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이바지하는 것”인 동시에, “당과 정부가 모성들에게 베풀어주는 크나큰 배려”에 대한 보답이 되었다.¹²⁰

가정의 공적 공간화의 출발은 한국 전쟁 이후 진행된 복구 건설이었다. 김일성은 전후 복구 건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도시 설계 일군들과 담화를 나누며 세세하게 지도하였다.¹²¹ 김일성은 도시 건설에 있어 거주민의 건강을 강조하며 건물들의 배치 뿐 아니라 채광, 통풍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주문하였으며,¹²² 결과적으로 대중은 지도부의 의사가 철저히 관철된 주택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¹²³ 전후 복구 건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

¹¹⁸ 본사 기자, “년소아 건강 관리의 새로운 형태”, 『인민 보건』 1959년 4월, 54-55.

¹¹⁹ 강진웅은 “해방 이후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인민 보건 사업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개인들의 신체를 지배하고 이로써 전체 인구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해산 방조는 “여성의 몸의 통제”로서 “출산의 문제에서 과학적인 지식의 확산을 통해 아래로부터 규율화된 실천을 유도”한 것이었고, 아동 기관의 확대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돼 전후에 본격화된 국가의 여성 노동력 통제와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를 위한 아동의 신체에 대한 개입이었다. 북한의 보건 사업에 있어 “전체 종의 통제를 바탕으로 개인 주체의 규율로 이어지는 생명 정치의 기제가 성별 정치를 통해 발전”했다고 보았다. 강진웅, “1950-1960년대 국가형성기 북한의 생명정치와 사회주의 주체 형성”, 『사회와 역사』 98 (2013), 67-173.

¹²⁰ 리영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상식”, 『위생 문화』 1959년 12월, 31.

¹²¹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인민들에게 위생문화적인 살림집을 마련하여주시려고”, 『인민의 어버이(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93-97.

¹²² 김일성,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발췌) - 도시설계일군들과 한 담화 1951년 1월 21일”, 조선로동당 출판사 편, 『인민 보건사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5), 29-30.

¹²³ 김지형의 북한 일상사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전형적인 일상적 정체성 프로젝트”는 “주택”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주택은 소비의 영역, 일상 생활의 연속으로서 생산 체제의 비경제적인 면

된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위생 문화 사업 과정에서 실시된 각종 가정 방문이 가정의 공적 공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천리마 작업반 창호 수여 평가 기준에는 작업반 성원들이 “개체 위생을 잘 꾸리는” 것 뿐 아니라 “가정 생활을 검박하고 문화 위생적으로 잘 꾸리”는 부분까지 포함되었다.¹²⁴ 위생 문화 사업에서 가정 방문은 해당 가정의 아동이 학교에서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¹²⁵ 예방 주사를 접종할 때, 위생 선전 사업을 진행할 때,¹²⁶ 위생 검열을 진행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이루어졌다.¹²⁷ 또한 그 외에도 매년 연말 등 정기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를 조사하기도 하였다.¹²⁸ 개인은 자신의 가정을 당과 정부의 위생 기준에 맞추어 꾸려나가야만 했고, 결과적으로 가정은 인민 보건 정책의 대상이자 그것이 관철되는 공간이 되었다.

5. 결론

금년 65세인 김홍필 로인이 자기 집 채소 밭에 인분을 주었던 일이 있었다. 로인 역시 채소 밭에 인분을 텃 거름으로 주지 말라는 내각 결정을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니었으나 오랜 기간을 두고 채소 밭에 인분을 몇 거름이나 주었어도 채독이나 화충중에 죽은 이 없었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며누리에 반대에도 듣지 않았다. 위생 상식을 배우고 있는 며누리로서는 시아버지의 이러한 그릇된 행동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이 사실을 리 위생 검열 위원회에 알렸다. 물론 사소한 결함 같지만 내각 결정을 위반했고 공중 위생 도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남들에게까지 위생상 좋지 못한 영향을 준 이러한 낡은 사상의 표현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는 없었다. 위생 검열 위원회에서는 즉시로 로인을 불러다 놓고 비판하였다. 위생 검열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그릇된 행동들이 적기는 하였으나 나타나게 된 원인을 위생 사업은 자신과 나아가서 사회를 위한 것으로 알게 하는 공산

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주택은 이데올로기적·문화적 교육의 장소였으며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질 것을 요구받았다. 김지형, “일상생활의 생산: 전후 북한의 전체주의와 일상”, 박순성 편,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한울, 2013), 134-135.

¹²⁴ 강호제, 앞 책 (각주 10), 373.

¹²⁵ 정숙례, “김일성 원수의 현지 교시를 받들고 원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각주 30), 302.

¹²⁶ 최병극, “담당 구역내 소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과 방법에 대하여”, 『인민보건』 1957년 6월, 32.

¹²⁷ “신호”, 『교원 신문』, 1959. 2. 24, 4면.

¹²⁸ 리종률, 『보건 조직학』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2), 281.

주의 교양 사업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당과 정부 결정을 철저하게 해설 침투시키는 사상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결과이라는 것을 포착하였다.¹²⁹

위생 문화 사업이 “자신과 나아가서 사회를 위한 것”임이 강조된 것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성된 뒤 이 사업이 생산 현장을 넘어 일상 생활 전반에서 대중의 일상에 침투한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이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경제 형태의 개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 의식과 생활 양식을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한 위생적이고 문화적인 생활 양식의 확립은 사회주의적으로 일상을 변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¹³⁰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해 신체와 건강이 각 개인에게 귀속된 사적인 것에서 국가적 관리와 통제의 대상인 공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국가 권력은 위생 문화 사업으로써 대중과 그들의 일상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조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위생 문화 사업은 좁은 의미의 위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생을 일상 생활 전반에서의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이 일상 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개인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는 데서 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위생 문화 사업은 물질적인 측면과 사상적인 측면을 상호 보완하면서 진행되었고, 애국주의 및 사회주의적 사상 교양을 적극 활용하여 대중 동원을 유도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쟁 운동, 모범의 일반화, 상부로부터의 지도와 통제 등 당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위생 문화 사업이 “단순한 청소 사업”이 아니라 “생활 양식을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개조하기 위한 균중적인 문화 운동”으로서 “인민들의 문화 도덕적 풍모를 개변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도덕 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위생 문화 사업은 “문화 혁명의 일환으로서 모든 생활 환경을 문화 위생적으로 철저히 개변시키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를 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업이었다.¹³¹

¹²⁹ 본사 기자, “꾸준하고 실속있게 위생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함경남도 단천군 쌍룡리 위생 검열 위원회 사업에서”, 『위생 문화』 1959년 7월, 22.

¹³⁰ 라근의, “로동 계급은 위생 문화 사업에서도 옹당 영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위생 문화』 1959년 10월, 1.

¹³¹ 지면식, “위생 문화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각주 56), 54.

위생 문화 사업을 통해 개인의 신체가 사적 존재에서 공적 존재로 변화되었고, 학생과 여성 등 예비 노동 인구가 일상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경험하게 하였다. 위생은 대중의 일상 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점에서 1950년대 후반 북한 국가 권력이 대중에 침투하는 매개체로 이용되었다. 위생 문화 사업은 대중 개조를 통한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기제의 일부로서 작동했고, 그러한 정치성은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정책이라는 외면에 숨겨진 채 대중의 일상 생활에 스며들었다. 각 개인은 위생적이고 건강한 인간, 성실히 노동하는 인간, 지도와 통제를 받는 인간,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고 복무하는 인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유도되었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위생 문화 사업은 “사회주의의 아름다운 미래를 현실적으로 체험”시켜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고자 한 시도였다.¹³²

(투고: 2018년 2월 15일, 심사 완료: 2018년 4월 1일, 게재 확정: 2018년 4월 4일)

¹³² 박희찬, “위생 개조의 선구—송동리와 일암리를 찾아서”, 『인민 보건』 1957년 8월, 91.

Hygiene and the Making of the Socialist Lifestyle: Reconstruction of the People through the Hygiene Culture Project in North Korea in the late 1950s

YUN Yeonha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Ock-Joo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 Junh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Hygiene Culture Project was one of the major nationwide project in North Korea in the late 1950s. It was active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 mass mobilization movement that brought in a wide range of population from children to the elderly, from production sites to schools and h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Hygienic Culture Project, and to identify the societ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drove the project. The Hygiene Culture Project began as a communicable diseases prevention project in the 1940s. From 1958, when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istic economic system was complete, however, public hygiene was promoted as part of a broader cultural revolution. The hygiene Culture Project not only included previous disease prevention programs, but expanded to encompass the improvement of general living environment and everyday life. Through routine “hygiene inspection” to peoples’ living rooms, the nation was able to intervene in the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This also allowed the nation to mobilize the people who were not involved in labor, such as students, mothers and the elderly. With the Hygienic Culture Project, “hygienic lifestyle” became an ideal “socialist lifestyle.” The Hygiene Culture Project was a mass reconstruction project that transformed people suitable to the new socialist system.

Keywords. hygiene, North Korea, Hygiene Culture Project, mass mobilization, reconstruction of people, socialism